



전북 학생선수들이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겸 화랑기 제42회 전국시도대항양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 도내 학생선수들 '금빛 과녁' 명중

소년체전 겸 전국시도대항양궁대회서 전북 女 단체전팀, 결승서 대구 제치고 우승

전북 학생선수들이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겸 화랑기 제42회 전국시도대항양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일산(오수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겸 화랑기 제42회 전국시도대항양궁대회'에 도내 5개팀(전주은고올중·전북체육중·전주솔빛중·임실군양궁스포츠클럽·오수중학교)이 참가해 대회 첫날 금 2개(남자 60m, 여자 단체전), 은 1개(여자 60m)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종목별 개최가 결정된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중 도내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대회로 전북에서는 5개팀 18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대회 마지막 날(5월 29일) 여자 단체전팀(오수중 3학년 김다희, 오수중 3학년 김미현, 전북체육중 3학년 남가형, 전주솔빛중 2학년 유승하)이 결승전에서 대구를 상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 초반 1세트 0:2로 밀리는 듯 하더니 2세트에 2:2 동점, 3세트 3:3, 4세트 5:3으로 최종 역전 우승을 차지해 더욱 기쁨이 컸다.

또한 대회 첫날(5월 27일) 남자(60m)에서 금메달을 딴 전주은고올중학교(학교장 임석주) 장우혁 선수가 1점차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60m)에서 전북체육중학교(학교장 박재중) 남가형선수는 마지막 6발을 남겨놓고 역전을 허용해 아쉽게 은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단체전 역시 8강에 진출해 충남에게 패했지만 16강 경기에서 전국 4위팀인 부산을 6:0으로 이겨 전라북도 양궁의 미래를 밝게했다.   
한편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료 후 제49회 대회 미개최로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가 우려됐으나, 도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전문스포츠클럽 전환과 육성종목 강화훈련비,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팀 참가비 등 선제적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육성종목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종목별 겸임대회로 개최되고, 도내에서 열린 이번 양궁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소외되는 종목이 없도록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비와 전라중목 지원 등 초·중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서 기자

# 장애인 스포츠복지 증진... 완주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임원선임·사무국 운영규정 등 의결

완주군 장애인체육회가 시작을 알렸다.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최근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완주군 장애인 체육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장애인체육회 임원선임, 장애인체육회 규약(안), 사무국 운영규정(안), 2021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임원선임에서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회장으로 하고, 박숙자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부회장으로 하는 등 5명의 부회장, 이사 2명과 감사 2명을 선임했다.   
군은 지난 1월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등을 포함한 장애인체육회 설립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지난 4월까지 4차례 걸친 실무 회의를 열어 장애인체육회 규약(안)과 임원 구

성(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 절차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해왔다.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전담기구로서 장애인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장애인체육회 설립으로 장애인체육 인프라 구축 및 저변 확대를 통해 완주군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높이고 건강복지를 증진해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장애인체육회는 전북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 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선임된 임원들은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 장애인 체육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최근 완주군청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아시아발전재단,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문화, 교류를 만나다 K-STAY'를 진행한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 한국문화 체험 'K-STAY' 에서

태권도진흥재단,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이달부터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아시아발전재단(이사장 김준일),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과 함께 태권도와 한식 한지공예 등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문화, 교류를 만나다 K-STAY'(이하 K-STAY)를 진행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모집한다.   
K-STAY는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을 느끼고 참가한 외국인들이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등 '문화 교류의 장'으로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태권도 기본자세 수련과 호신술 태권체조 배우기 등의 태권도 체험과 전주 10미(味) 강의와 스스로 감탄을 만들어서 먹는 한식 체험 한지 부채 만들기 등의 한지 공예를 체험할 수 있다.   
태권도 체험은 태권도진흥재단 지도사범이 신청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고, 한식과 한지 체험은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 소개 영상과 체험 키트 등을 제공해 과정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K-STAY'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격은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연령과 국적 등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개인이 모인 단체 또는 기관·법인 등 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진흥재단 아시아발전재단 세종학당재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지난해 실시한 온라인 K-STAY에는 고려인 동포 어린이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등이 참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라며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 설문 결과를 반영하는 등 올해는 더욱 내실있는 콘텐츠를 준비했다"라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K-STAY 참가자들에게는 수료증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우수 참가자의 작품 영상은 아시아발전재단 유튜브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